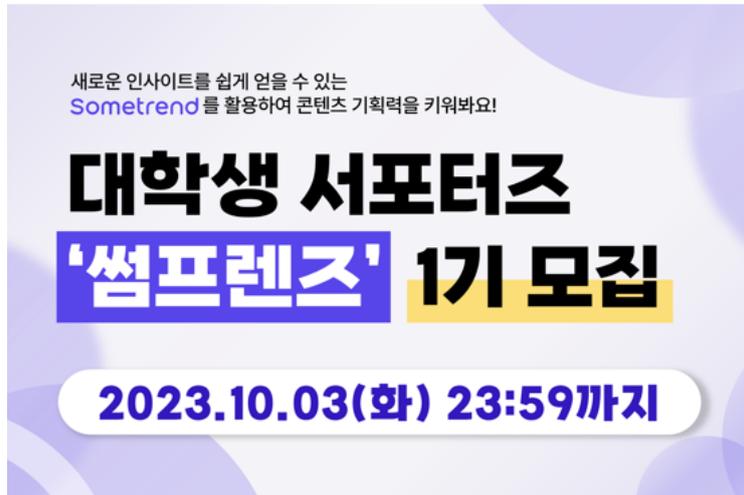


## [보도자료] 바이브컴퍼니, 썸트렌드 대학생 서포터즈 '썸프렌즈' 모집

- 더 나은 선택을 돕는 '썸트렌드' 서비스의 가치 알리고자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기획
- 오는 10월 3일까지 서포터즈 '썸프렌즈' 모집, 10월 7일 발대식 시작으로 8주간 활동 진행 계획



AI·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(대표 김성언, 이하 바이브)에서 자사 대표 서비스 중 하나인 '썸트렌드(Sometrend)'의 공식 대학생 서포터즈 '썸프렌즈' 1기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.

썸트렌드는 국내 최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일반인이 활용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 속 비정형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, 분석, 인사이트까지 제공한다. 이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마케터, 컨설턴트, 홍보 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학생, 기자, 크리에이터까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.

바이브는 보다 많은 사람이 썸트렌드를 활용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고자 대학생 서포터즈 '썸프렌즈'를 기획했다. 썸프렌즈란 썸트렌드의 '썸(Some)'과 친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'프렌즈(friends)'를 합친 말로, '썸트렌드를 알리는 친구들'을 뜻한다.

썸프렌즈는 개인 SNS 계정을 운영하고, 주 1회 온라인으로 성실하게 활동 가능한 대학생·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. 오는 10월 3일까지 썸트렌드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식 포스터에 명시된 링크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, 선발된 인원은 10월 4일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. 이들은 오는 10월 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8주 동안 썸트렌드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등 각종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. 자세한 내용은 썸트렌드 공식 홈페이지 및 썸프렌즈 모집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썸트렌드 윤순호 팀장은 "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썸트렌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"며 "이런 썸트렌드 서비스를 알리는 썸프렌즈 서포터즈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"고 말했다.